

체육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교과교육학 하위영역에 대한 출제경향 분석

조기범¹, 김승용^{2*}

¹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겸임교수 ²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조교수

Trend Analysis of Sport Pedagogy Sub-Domain in Secondary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Ki-Bum Cho¹, Seung-Yong kim^{2*}

¹Adjunct Professor, Division of Sport Science, Hanyang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Major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객관식 문항이 폐지된 이후인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체육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교과교육학 문항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평가내용요소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교과교육학 문항은 7년간 48문항이 출제되었으며, 83개의 하위질문이 발견되었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하위질문 개수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통합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둘째, 출제 문항 영역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드러났다. 셋째, 체육교수학습 및 평가, 체육교육 과정 영역에 지나친 출제 의존도를 보이고 있었다. 넷째, 교과내용학과 중복되는 평가 영역이 존재함에 따라 혼란이 가중되었다. 그러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존 평가 영역별 분류표를 기반으로 평가 내용 요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져야 하며 신뢰로운 교사시험을 위해 특정 학자와 이론에 의존에서 벗어나 학교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항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중등교사 임용시험, 체육, 교과교육학, 문항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Abstract The purpose was to analyze the trend of sport pedagogy in secondary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based on the secondary teacher qualification criterion in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since abolition of multiple-choice questions from 2014 to 2020. The result showed the questions for sport pedagogy were 48 question since 2014, and found 83 sub-questions.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frequency of sub-questions in sport pedagogy has increased, causing an integrated question. Second, the serious unbalanced issue of questions for examination was presented. Third, dependence on specific domains was excessively high. Fourth, the confusion caused by the overlapped domains with the content knowledge of physical education subject was intensified. Therefore, evaluation factors based on 2016 KICE classification table should be clear and field application questions should be developed.

Key Words : Secondary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Physical education, Sport pedagogy, Trend analysis,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Corresponding Author : Seung-Yong Kim(dragonkim@kyonggi.ac.kr)

Received February 4, 2021

Revised March 9, 2021

Accepted April 20, 2021

Published April 28, 2021

1. 서론

2015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을 통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년의 체육교과는 단순히 체육 수업 뿐만 아니라 건강 및 안전의 영역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육 교사의 전문성은 중요하다[1]. 이러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교육과정 전달자로서의 교사 역할을 요구했던 과거와 달리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는데다가 [2], 타 교과와 다르게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과 운동기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3]. 2019년을 기준으로 국내 중·고등학교 체육 교사 수는 중학교 9,299명, 그리고 고등학교는 4,407명이 근무 중이며,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비교과를 제외한 평균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교과는 평균 457명을 모집한 체육 교과목이며[4], 459명을 뽑은 2021년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4,279명이 지원해 9.32:1의 경쟁률을 보일만큼 체육 교사가 되기 위한 수요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학교에 첫발을 내딛는 체육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임용고사’ 또는 ‘임용고시’라고 부르기도 하며[5], 2008년 이전까지는 1,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진행되다가 2009년부터는 1차 필기시험 100점, 2차 논술형 필기시험 100점, 그리고 3차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시험평가 100점인 3단계 전형으로 바꾸었다[6]. 그러다가 객관식이 암기위주의 평가이며 3차에 걸친 시험이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2013년 이후부터는 객관식문항을 폐지하고 기존 3단계를 다시 2008년 이전인 2단계로 변경하였다. 결국 2014년 임용시험부터 지금까지 1차 필기시험과 2차 교직적성 심층면접, 학습 지도안 작성, 그리고 수업능력 평가 등을 토대로 체육교사를 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1차 시험은 교육학 60분과 전공 A, B 각 90분씩 총 240분간 진행되며, 시험응시 약 한달 이후 1차 합격자가 발표된다. 그리고 나서 실기평가, 교직적성 심층면접, 그리고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을 총 3일간 진행한다. 2020년 기준으로 1차 시험의 교육학 시험은 논술형으로서 1문항이 출제되며 총 100점 만점에 20점이 부여된다. 또 다른 1차 시험인 전공 시험은 전공 A와 B 시험으로 구분되며 각 40점씩 부여된다. 전공 A 시험은 기입형 4문항(8점)과 서술형 8문항(32점)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공 B 시험은 기입형 2문항(4점)과 서술형 9문항(36점)으로 구성되어 교육학 문제 포함 총 24문항이 1차 시험에서 출제된다. 전공 시험의 구성은 교과교육학 25-35% 그리고 교과내용학 65-75% 범위 내에서 출제되고 있음을 전국 각 시도별 교육청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7].

이렇듯 자주 변하는 중등 임용시험의 시험 체계에 의해 혼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의 출제방향을 스스로 탐색하게끔 유도하여 적합한 학습방법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5]. 그러나 혼자 공부하고 있거나 혹은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같이 임용시험에 대한 정보 습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에 처해 있는 수험생들의 경우 잘못된 임용시험 정보에 노출되어 있거나 혹은 현 출제 시스템에서의 학습 탐색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8,9]. 그동안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과내용학 문항의 출제 경향 분석[6], 임용 시험 체제 [10], 교과교육학 문항분석[5,11,12] 등이 있었으나 2016년 체육교육과정평가원의 교사 자격 평가 영역에 새롭게 추가된 ‘체육교사’의 평가 영역을 함께 다룬 연구와 출제 문항의 하위질문까지 모두 분류하여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7년간 교과교육학 출제문항에서 제시한 하위질문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평가내용 요소를 근거로 분석하여 출제경향을 분석 및 제시하고 이에 어떤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제공함으로써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수험생을 지도하는 교원양성기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4-2020년의 체육과 임용 시험 교과교육학 문항 및 하위질문의 출제비율은 어떠한가? 둘째, 2014-2020년의 체육과 임용시험 교과교육학 출제경향은 어떠한가? 셋째, 출제비율과 출제경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객관식 문제가 폐지된 2014년부터 2020년 도까지의 7년간 중등 체육과 임용시험 출제문항 중 교과교육학 문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분석대상인 출제 문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의 기출문제를 참고하였다.

2.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체육과 교과교육학 문항 출제비율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14-2020년도까지 출제된 체육과 임용시험 문항 중 교과교육학 문항을 추출하여 전체 문항 수에서 차지하는 출제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별로 출제문항을 분석하였다. 체육과 임용시험 문항 중 교과교육학 출제문항은 기존의 4개 평가 영역을 제시했던 200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5개 평가 영역인 ‘체육교과교육, 체육교육과정, 체육 교수학습 및 평가, 체육과 교재, 체육교사’로 제시한 2016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최신자료를 활용해 분석하였고[13], 평가 영역에 따른 평가 내용 요소는 체육교과교육 3개, 체육교육과정 4개, 체육 교수학습 및 평가 5개, 체육과 교재 4개, 체육교사 3개 등 19개 요소로 구분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였다. 셋째, 평가 내용 요소별 문항내용을 분석하였다. 평가 내용 요소에 해당하는 하위요소들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자료를 분석 및 해석 하였다. 각각의 출제 문항이 어느 평가 내용 요소에 포함되는가는 임용교사 대비 전공서적 3권과 교과교육론 교재 2권의 목차 및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분석하였으며, 그럼에도 분석하기 어려운 문항들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분석하였다.

2.3 전문가회의

출제비율 및 출제경향 결과에 따른 시사점 도출내용에 대해 전문가 회의(스포츠교육학 교수 2명, 현직 체육교사 1명)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시험문항에서 두 가지 이상의 영역이 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시험문항에서 요구하는 체육 하위학문의 영역을 구분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경우에 대한 합의를 위해 전문가 회의를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5회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출제 문항이 교과교육학에 포함되는지 혹은 교과내용학에 포함되는지를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분류가 어려울 시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는 객관식 문항이 폐지된 이후인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7년간 교과교육학 문항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평가내용요소를 근거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Table 1의 결과는 전체 문항 수에서 교과교육학 문항의 출제비율을 분석한 것으로 최소 한 개 이상의 하위질문이 교과교육학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교과교육학 문항 수에 포함하였다. 또한, 한 문항 내에서 최소 두 개 이상의 교과교육학 이론 및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각각 나누어 영역별 문항 수에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한 개의 교과교육학 문항에서 체육교육과정의 사조와 모형 및 체육수업 평가에 대한 두 개의 하위질문을 제시했을 경우 교과교육학 문항 수에서는 한 개로 표기되지만 교과교육학 영역별 문항 수에서는 두 개로 표기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교과교육학 문항에 대한 출제비율 및 영역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3.1 체육과 교과교육학 문항 분석

객관식 문항이 폐지된 2014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절대적인 문항 수가 줄어들면서 교과교육학 문항 수 또한 2014년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2014년 이전까지 임용교사 문제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객관식 문항이 존재했던 시기에는 약 12문항의 교과교육학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다[5]. 그러나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문항을 분석한 결과 약 7문항 정도의 교과교육학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과교육학 문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문항빈도가 꽤 높았던 신뢰도 및 타당도, 준거지향 및 규준지향 검사 문항을 교과교육학으로 포함할 수 있느냐 혹은 체육측정평가인 교과내용학으로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Table 1. The number of questions in sport pedagogy for secondary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otal
The number of P.E. subject matter questions	6	8	7	6	6	6	9	48
The number of P.E. subject matter questions in domains	9	15	8	8	11	15	17	83
Total number of questions	23	20	22	22	22	22	23	154
Ratio of questions to the number of P.E. subject matter questions	26%	40%	32%	27%	27%	27%	39%	31%

전문가 협의를 통해 이와 관련된 문항들이 비록 체육 측정평가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체육교수학습 및 평가 영역의 '체육수업 평가'라는 평가 내용 요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교육학으로 포함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4년부터 총 7년간 48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전체 문항 수 대비 출제비율은 평균 31%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교과교육학 출제비율(25~35%)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과교육학 전체 문항과 관계없이 83개의 개별적인 교과교육학 이론 및 내용을 묻는 하위질문 들이 발견되었다.

3.2 평가 영역별 체육과 교과교육학 문항 분석

2014~2020학년도 체육과 교과교육학 평가 영역별 출제문항을 살펴보면, 총 83개의 하위질문 들이 발견되었으며, 2016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해 새롭게 분류된 평가 영역을 바탕으로 Table 2를 작성하였다. 우선 '체육교과교육'은 5문항으로 6%가 출제되었으며, '체육교육과정' 영역에서는 23문항으로 28%의 출제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체육교수학습 및 평가'는 48문항으로 58%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체육교사' 영역에서는 7문항

으로 8%의 비율을 보였다. 반면 '체육과 교재'는 출제되지 않았다. 이는 총 5개의 영역 중 4개의 영역에서만 출제가 되었으며, 출제비율의 빈도순은 '체육교수학습 및 평가', '체육교육과정', '체육교사', '체육교과교육' 순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5개 평가영역 중 '체육교수학습 및 평가'와 '체육교육과정' 영역에서만 86%가 출제되어 편중된 출제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평가영역별 고른 출제원칙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1 체육교과교육

체육교과교육은 기본적인 체육교육의 개념과 가치를 이해하고 20세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체육교육의 발전 및 동향을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5문제가 출제되어 6%의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요한 평가영역으로 보긴 어렵다. 또한 출제되었던 문항들 중 '신체를 통한 교육'과 '인간 움직임 교육'에 대한 것들은 교과교육학을 학습할 때 첫 내용으로 학습되어 지는 것이지만 교과내용학 중 '체육사'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출제의도가 시대적 흐름 혹은 철학을 다루는 것인지 혹은 과거 체육교과교육의 내용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인지에 따라 '교과교육학

Table 2. The number of questions in the domains of sport pedagogy

Domains	Evaluation contents	'14	'15	'16	'17	'18	'19	'20	계
P.E. Subject Matter	Concept and history of P.E.		2					2	4
	Development of 20 th P.E.		1						1
	Trend of 21 st P.E.								
P.E. curriculum	History and Changes of P.E. curriculum	4	4		3	3	1	4	19
	P.E. value orientation and curriculum models			1			1		2
	Development of P.E. curriculum					1			1
	Integrative approach of P.E. curriculum						1		1
P.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assessment	Meaning of P.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Development and Understanding of P.E. class					1			1
	P.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4	4	3	3	2	6	5	27
	Management of P.E. class and (adapted) students		2	3	2	1	2	2	12
	P.E. class assessment	1		1		1	2	3	8
P.E. subject	Meaning and category of P.E. subjec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E. teaching subject materials								
	Composition of P.E. teaching and learning lesson plan								
	Use of P.E. teaching devices and materials								
P.E. teacher	Qualification and roles of P.E. teacher		2			2	2	1	7
	Professional Development of P.E. teachers and learning community								
	Instructional supervision in P.E. class and consulting								
Total	9	15	8	8	11	115	17	83	

영역'에 포함될 수도, 그리고 '체육사'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3에서 구체적인 문항들을 살펴보면 체육교육의 개념과 가치 요소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2015년 1문항, 2020년 1문항)과 인간 움직임 교육(2015년 1문항, 2020년 1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시대별 체육사상의 변화(2020년 1문항)가 출제되었다.

3.2.2 체육교육과정

체육교육과정은 체육과 교육과정의 수준으로서 제시되는 이념적, 문서적, 실천적 수준의 이해를 요구하는 영역이다. 이념적 수준으로는 체육교육과정의 사조와 모형이 대표적이며, 문서적 수준으로는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에 관련된 문항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실천적 수준으로는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교사'라는 역할을 중시하며 체육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 그리고 통합적 수업 추구에 대한 구체적인 수업 실천 방안에 대한 문항들이다. 총 23문항이 출제되어 28%의 출제비율을 보임으로써 평가영역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거의 매년 2~3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Table 4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육교육과정의 역사와 변천 요소에서는 2009 체육과 교육과정의 중학교 편성(2014년 1문항),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2014년 1문항, 2015년 1문항), 평가의 방향(2014년 1문항), 교수·학습 운영 계획(2014년 1문항, 2015년 1문항), 고등학교 체육과목 이수 단위(2015년 1문항), 그리고 영역형 경쟁(2015년 1문항)이 출제되었다. 또한 2015 체육과 교육과정의 중학교 총론(2017년 1문항), 내용 체계(2017년 1문항, 2020년 1문항), 안전영역(2018년 1문항), 일반선택 건강과 운동(2018년 1문항), 교과역량(2019년 1문항), 교수·학습 방향(2020년 2문항),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2020년 1문항)이 출제되었다. 마지막으로 체육 교육과정을 시기별로 비교하는 문항(2017년 1문항, 2018년 1문항)이 출제되었다. 체육 교육과정의 사조와 모형 요소에서는 교사의 가치 정향의 내용속달(2016년 1문항), 사회재건 및 자아실현(2019년 1문항)이 출제되었고,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과 개선 요소에서는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 수준(2018년 1문항)이 출제되었다. 마지막으로 체육교육과정의 통합적 접근 요소에서 포가티(Fogarty)의 통합 방식의 공유형(2019년 1문항)이 출제되었다.

3.2.3 체육교수학습 및 평가

체육교수학습 및 평가 영역은 실제 체육수업을 위한 준비, 실행, 평가단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능력을 학습하는 영역으로 수업진행을 위해 교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Table 3. The number of questions and contents in the domain of P.E. subject matter

Content element	Questions set at secondary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Total
Concept and history of P.E.	Modern and present age: education through the physical (2015)(2020); human movement education(2015)(2020)	4
Development of 20 th P.E.	Changes of P.E. class(2015)	1
Trend of 21 st P.E.		

Table 4. The number of questions and contents in the domain of P.E. curriculum

Content element	Questions set at secondary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Total
History and Changes of P.E. curriculum	1) 2009 P.E. curriculum: middle school organization(2014); school sport club activities(2014)(2015); direction of evaluation(2014); teaching and learning operation plan(2014)(2015); P.E. subject completion unit(2015); competition activities(2015); teaching and learning operating 2) Comparison of P.E. curriculum per period(2017)(2018) 3) 2015 P.E. curriculum: summary of middle school P.E. curriculum(2017); organization of P.E. content(2017) (2020); safe domain(2018); general selective health and exercise(2018); P.E. subject competency(2019); direction of teaching and learning(2020a)(2020b); school sport club activities(2020)	19
P.E. value orientation and curriculum models	Value orientations in P.E.: disciplinary mastery(2016); social responsibility and self-actualization(2019)	2
Development of P.E. curriculum	Development level of P.E. curriculum(2018)	1
Integrative approach of P.E. curriculum	Integrative approach of Forgarty: shared(2019)	1

조사한 기간 동안 총 48문항이 출제되어 58%의 출제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어 교과교육학 문항의 절반이상이 이 영역에서 출제되고 있었다. 특히, 교육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의·인성 교육, 여학생 신체활동 참여 증가를 위한 노력, 그리고 장애학생 지도 등 사회적으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러한 주제들은 모두 체육교수학습 및 평가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지속적일 것이라고 예측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문항들을 보면 링크(Rink), 시덴탑(Siedentop), 모스톤(Mosston), 메츨러(Metzler)와 같이 대부분 이미 은퇴한 학자들의 이론들에 여전히 의존적임을 알 수 있다.

Table 5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육수업의 이해 및 개선 요소에서 링크 수업전략(2015년 1문항, 2017년 1문항, 2018년 1문항, 2019년 1문항, 2020년 1문항)은 총 5문제가 나와 조사된 2014-2020년 기간 중 2014년과 2016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출제가 되었다. 모스톤의 수업스타일 중 자기설계형 및 자기점검형(2014년 1문항), 자기점검형 및 포괄형 스타일(2016년 1문항), 상호학습형 스타일(2017년 1문항), 유도발견형 스타일(2019년 1문항), 그리고 확산발견형 및 포괄형 스타일

(2020년 1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수업스타일의 필요성(2015년 1문항)에 대해 묻는 문항도 있었다. 메츨러의 수업모형에서는 협동학습 모형(2014년 3문항, 2018년 1문항, 2020년 1문항),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모형(2015년 1문항, 2020년 1문항), 전술 게임 모형(2016년 1문항, 2017년 1문항), 직접교수 모형(2019년 1문항), 개별화 지도모형(2019년 1문항), 동료교수 모형(2019년 1문항), 스포츠 교육모형(2020년 1문항)이 출제되었고, 협동학습 모형과 탐구수업 모형을 동시에 묻는 문항(2019년 1문항)이 있었으며, 학습 선호 분류 차원(2015년 1문항)과 수업모형의 개념(2016년 1문항)과 같이 수업모형의 기본 개념을 묻는 문항들도 출제되었다.

체육수업 및 (장애)학생 관리 요소에서는 바비(Barbe)와 스와싱(Swassing)의 학습 유형(2015년 1문항), 학습 단서(2016년 1문항), 행동계약서(2016년 1문항), 메츨러의 질문유형과 피드백(2017년 1문항), 메츨러의 과제전개전략(2020년 1문항), 학습자 관리 전략(2015년 1문항), 예방적 수업운영 활동(2016년 1문항), 시덴탑의 체육수업 생태의 과제 체계(2017년 1문항), 쿠닌(Kounin)의 예방적 교수기능(2018년 1문항, 2020년 1문항), 시

Table 5. The number of questions and contents in the domain of P.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assessment

Content element	Questions set at secondary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Total
Meaning of P.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Development and Understanding of P.E. class	Selection of P.E. learning activities(2018)	1
P.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1) Rink's class strategy: peer learning(2017); co-teaching(2019); content development(2015)(2018)(2020) 2) Mosston's teaching style: self-check and learner-designed individual program styles(2014); importance of teaching style(2015); self-check and inclusion styles(2016); reciprocal style(2017); guided discovery style(2019); divergent discovery and inclusion styles(2020) 3) Metzler's instructional models: cooperative learning(TGT,2014) (Slavin's three concepts,2014)(Jigsaw,2014;2020)(Johnson & Holubec,2018); dimention of Reichman & Grasha(2015); teaching and learning assumptions of teaching for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2015)(2020); tactical games(task structure,2016)(game performance assessment instrument,2017); concept of instructional models(2016); direct instruction(task presentation,2019); personalize system for instruction(task presentation and structure,2019); cooperative learning and inquiry models(2019); peer teaching(communication between teacher, observer, and performer,2019); sport education(domain priorities,2020)	27
Management of P.E. class and (adapted) students	1) class and student instruction: learning style of Barbe & Swassing(2015); learn clue(2016); contingency contracting(2016); Metzler's three questions of content and feedbacks(2017); Metzler's task performance strategies(2020) 2) class and student management: student management strategies(2015); proactive class management(2016); Siedentop's ecological perspective on P.E.(2017); Kounin's proactive teaching functions (2018)(2020); Siedentop's behavior modification(2019); teaching functions of Ornstein & Levine(2019)	12
P.E. class assessment	1) reliability and validity: reliability coefficient and achievement standard score(2014);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ssessment(2016)(2020) 2) systematic observation(2018)(2020) 3) norm-referenced and criterion-referenced: criterion-referenced assessment(2019); norm-referenced assessment and discrimination(2020) 4) performance assessment(2019)	8

Table 6. The number of questions and contents in the domain of P.E. teacher

Content element	Questions set at secondary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Total
Qualification and roles of P.E. teacher	1) teacher knowledge: Shulman's teacher knowledge(2015)(2018)(2020); Metzler's three types of knowledge(2015); Schon's teachers' preactical knowledge(2018) 2) Siedentop's development and practice for teaching function (2019) 3) P.E. class inequality factors of Napper & Owen(2019)	7
Professional Development of P.E. teachers and learning community		
Instructional supervision in P.E. class and consulting		

덴탑의 행동(계약)수정 방법(2019년 1문항), 그리고 온스틴(Ornstein)과 레빈(Levine)의 교수 기능(2019년 1문항)이 출제되었다. 마지막으로 체육수업 평가 요소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2014년 1문항, 2016년 1문항, 2020년 1문항), 체계적 관찰법(2018년 1문항, 2020년 1문항), 규준지향과 준거지향(2019년 1문항, 2020년 1문항), 그리고 수행평가 방법(2019년 1문항)이 출제되었다.

3.2.4 체육과 교재

체육과 교재는 주로 체육수업 진행을 위한 사전준비단계에서 요구되는 지식 혹은 이론을 요구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체육과 교재 영역은 수업실연과 같이 실습에서 요구되는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중등 임용 2차 시험에서 이를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론으로서의 중요성은 강조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체육과 교재 영역의 내용 요소 중 '학습지도안 작성'의 경우 직접적으로 학습지도안 작성을 요구하는 문항들은 나오지 않았으나, 학습지도안을 교과교육학 문항 배경으로 활용한 경우(2016년 1문항, 2017년 2문항)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전지식이 부족한 경우 문항을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3.2.5 체육교사

체육교사 평가영역은 체육교사의 자질 및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육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학습공동체를 조직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체육수업 장학 및 컨설팅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요소로 구분되어 있다. 이 평가영역은 기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평가내용요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체육교육론 평가영역의 '체육교사의 자질론'이라는 평가 내용 요소에 포함되었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체육교사라는 새로운 평가영역을 만들어 분류하기 시작했다.

Table 6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육교사의 자질 및 역할 요소에서 숄만(Shulman)의 교사 지식(2015년

1문항, 2018년 1문항, 2020년 1문항), 메츨러의 3가지 유형의 지식(2015년 1문항), 손(Schon)의 교사 실천적 지식(2018년 1문항), 시덴탑의 교수기능 발달단계 및 연습법(2019년 1문항), 그리고 네퍼(Napper)와 오웬(Owen)의 체육수업 불평등 요소 해결(2019년 1문항)이 출제되었다.

4. 시사점 및 결론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본 자격은 사범대에 진학하거나 교직이수를 하는 등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국공립 중등학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시험을 치러야만 한다. 이러한 중등학교 임용교사는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수준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평가 영역과 평가 내용 요소가 상세히 분류되어 있지 않아 출제 방향을 분석하는 것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13]이 제시한 4개의 평가 영역에 의해 출제방향을 제시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임용교사 교과교육학 문항분석을 시도한 선행연구가 있었다[5]. 그러나 기존 4개의 평가 영역에서 '체육교사' 평가영역을 새롭게 추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료를 통해 문항분석을 시도한 선행연구는 미흡했으며, 이에 따라 최근 2014-2020년 사이의 중등교사 임용 시험 문항분석을 통해 보다 타당성이 있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3년간(2018~2020)의 하위질문 개수가 이전 기간에 비교하여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교육학의 문항 수는 매년 6-9개 사이로 큰 차이가 없지만, 한 개의 문항을 여러 하위질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형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통합형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뜻으로 과거에는 하나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 문항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론 혹은 내용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 문항들의 경우

한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 두 개 이상의 이론 혹은 내용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게끔 변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흐름은 단편적인 지식을 묻기보다 통합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것으로 최근 국가시험들의 추세와 방향성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출제 문항 영역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점이다. 기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분류표를 바탕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총 4개 평가 영역의 20개 평가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 7개 평가 내용 요소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단 한문제도 출제된 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었다[5,11]. 본 연구결과 또한 총 5개 평가 영역의 19개 평가 내용 요소 중 8개의 평가 내용 요소가 출제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평가 영역 별 출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개의 교과교육학 문항분석 뿐만 아니라 그 안의 세부질문까지 모두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국무총리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1년에 발표한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 연구’의 방향성을 반영하여 분류한 현재의 교사 자격기준 개발 평가 영역에 대한 재논의 및 이에 따른 평가 영역 분류의 재구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13].

셋째, 평가 영역 중 ‘체육교육과정’과 ‘체육교수학습 및 평가’에 지나친 의존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총 83개의 세부 문항 중 71개가 위의 두 개의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으며, 이는 86%의 비율을 보인다. 다시 말해 5개 평가 영역 중 2개 영역이라는 단순 예측으로만 보자면 이상적인 출제 비율은 40%정도이지만 이러한 수치를 크게 넘는 높은 의존도에 따라 중등 임용고사를 보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위 두 평가 영역만 학습하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교사로서 지녀야 할 다양한 자질을 임용고사 시험으로 신뢰롭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특히, 27개의 세부 문항들이 출제된 체육교수학습 방법의 평가 내용 요소에서는 미국의 링크(Rink), 모스톤(Mosston), 메츨러(Metzler)가 발표한 이론들에서만 출제됨에 따라 특정 학자들의 이론들에 대한 의존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중등 임용고사 시험을 통해 교사들의 자질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개 영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혹은 특정 학자들의 이론을 벗어나 최근 뉴 스포츠(New Sports) 수업[15],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16], 혹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과 같이 변화하고 있는 체육수업에 맞는 보다 다양한 이론들을 임용고사

시험에서 다룸으로써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출제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과내용학 영역과 내용이 중복되는 평가 영역에 대한 보다 명확한 평가 영역 분류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83개의 세부 질문들을 분석하면서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영역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 문항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스포츠 심리학, 체육사 및 철학, 운동측정평가와 같은 교과내용학의 일부 내용은 교과교육학에서도 다루지는 것으로 개인적 관점에 따라 모두 다르게 판단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중등 임용고사 수험생 및 대학의 교직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자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 내용 요소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내리거나 혹은 각 평가 내용 요소의 범위를 제시해 주는 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제시한 시사점들을 통해 후속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평가 영역별 분류표를 바탕으로 평가 내용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린 뒤 이에 따른 재분류 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교과교육학 영역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타 교과의 평가 영역은 어떤 기준에 의해 분류되어 있으며 중등 임용고사 시험의 출제 경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타 교과의 대처방안 혹은 발전방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체육교과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C. W. Yu. (2018). Exploring the Application of the 2015 Revised High School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23(2), 17-27. DOI : 10.15831/JKSSPE.2018.23.2.17
- [2] J. A. You. (2010). Why Physical Education Teacher as Curriculum Maker?.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17(4), 1-18. UCI : I410-ECN-0101-2016-692-002797801
- [3] J. J. Park & C. W. Yu. (2017). A Study on the Direction of Physical Education Based on the Changes of School Education in the Future Society.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24(2), 1-17. DOI : 10.21812/kjsp.2017.04.24.2.1
- [4] Ministry of Education. (2020).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https://kess.kedi.re.kr/index>

- [5] W. K. Shin, D. S. Han & J. W. Yi. (2016). Study on the item analysis of The Examination for Appointing Secondary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nd its Directivity.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23(3), 1-17. DOI : 10.21812/kjsp.2016.07.23.3.1
- [6] Y. S. Huh & B. O. Choi. (2013). Trend Analysis of Secondary School Physical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2009-2013 School Year. *The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2(4), 835-848.
- [7]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5). *Secondary Teacher Qualification Examination*. <http://kice.re.kr/sub/info.do?m=010602> &s=kice#tablink
- [8] K. B. Cho & S. Y. Kim. (2017). A Study on Students' Difficulties Before and Throughout Physical Education Program a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1), 603-610. DOI : 10.14400/JDC.2017.15.11.603
- [9] K. B. Cho & S. Y. Kim. (2019). An Ecological Approach to Physical Education Students' Drop-out and Opt-out a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bout Teacher Appointment Examination of Secondary School.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1), 265-275. DOI : 10.15207/JKCS.2019.10.1.265
- [10] J. L. Park. (2011). A Study on Middle School PE (Physical Education) Teacher Appointment Exam System.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18(4), 59-80. UCI : I410-ECN-0101-2016-692-002796819
- [11] D. J. Lee. (2020). An Analysis of Sport Pedagogy in Secondary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 Focusing on Sport Pedagogy since 2014.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25(2), 17-34. DOI : 10.15831/JKSSPE.2020.25.2.17
- [12] S. H. Hong. (2020). A Study on the Items and Trends Analysis of the Examination for Appointing Secondary School in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he Korea Journal of Sport*, 18(1), 259-266.
- [13]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6). *Secondary Teacher Qualification Criterion*. <http://www.kice.re.kr/main.do?s=kice>
- [14]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1). *Study on Secondary Teacher Selection Process Development*. <https://www.kedi.re.kr/khom> e S. J. Kim, J. H. Kim & S. P. Hong. (2008). Improving School Physical Education through the New Sport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7(2), 197-208. UCI : G704-000541.2008.47.2.006
- [16] Gubacs, K. (2004). Project-Based Learning: A Student-Centered Approach to Integrating Technology into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 Dance*, 75(7), 33-37. DOI: 10.1080/07303084.2004.10607272

조 기 범(Ki-Bum Cho)

[경력]



- 2004년 2월 : 한양대학교 졸업(체육학사)
- 2011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체육학석사)
- 2016년 12월 : West Virginia Univ. (체육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겸임교수
- 관심분야 : 교육과정개발, 건강교육, 교직과정
- E-Mail : rotc11542@hanyang.ac.kr

김 승 용(Seung-Yong Kim)

[경력]



- 1999년 2월 : 한양대학교 졸업(체육학사)
- 2002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체육학석사)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체육학박사)
- 2019년 9월 ~ 현재 :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조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교육학,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 E-Mail : dragonkim@kyonggi.ac.kr